

동네방네

담양군,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소득창출

담양군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소득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소유자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빈집·빈창고 등을 마을공동체에서 맡아 관리 운영하거나 개인이 창업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5년간 임대가능하고 지원 시 소득창출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3팀 이내로 마을공동체의 경우 5,000만원(자부담 10%) 이내, 소규모공동체 및 개인의 경우 2500만원 이내(자부담 30%)로 숙박시설 및 카페·식당, 체험 교육센터 등의 사업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상주시 “정부 보급종 콩 종자 신청하세요”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해 국립종자원의 엄격한 종자검사와 발아율, 순도검사 등을 거쳐 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급종을 읍면동을 통해 11t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주시 콩 보급종 예시량은 2품종 11t이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콩 보급종 신청 대상은 대원과 대찬으로 둘다 만생종이며 장류용이다. 대

원콩은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 시 6월 상순 이전에 파종해야 하며 과다한 비료를 사용하거나 뽕뽕하게 심을 경우 쓰러질 수 있다. 대찬콩은 콩이 잘 클 수 있도록 적기에 및 적정 포기를 심어야 한다. 꼬투리가 일찍 벌어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수확해야 한다.

공급 가격은 1포(5kg)에 2만5510원이며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농가 공급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상주=김홍기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로 전지훈련 줄지어

부산항만공사 조정 선수단 등 위생·안전시설 상시 점검

장성군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조정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성호를 찾았다고 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4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0일까지 장성군에 머물 계획이다.

유효 저수량 1억t, 유역 면적 1만 2000여 ha에 이를 정도로 웅장해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장성호는 수려한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적고 물살이 잔잔하다.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조정 국가대표 상비군의 전지훈련지로 선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정, 카누 등 전국 34개 팀 300여명의 선수들이 장성호를 찾았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선수단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 방문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장성군청

장성군 관계자는 “선수단이 체류하는 동안 위생과 안전, 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상시 제공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7월 장성호에서 ‘제36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회가 성사되면 장성호는 13년 연속 전국 규모 조정대회 유치를 기록하게 된다.

밤마다 낙동강 경천섬 빛으로 물들인다

낙동강 범월교·낙강교 조명 연출 내달말 가동... 관광 활성화 기대 경천섬 주변 명소화 사업 추진

상주시의 관광 명소인 낙동강 경천섬 일원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다음 달 선을 보인다.

상주시는 경천섬 주변 경관조명 설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3월 말 가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곳은 낙동강 중간에 위치한 경천섬을 동서로 잇는 범월교와 낙강교다. 모두 보행자용 교량으로 낙동강 서쪽에 있는 자전거박물관·낙동강생물자원관 등과 동쪽의 회상나루 관광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낙강교는 길이 345m로 지난달 개통됐다. 보도현수교(교각에 케이블을 설치해 다리를 지지하는 보행용 교량)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이가 길다.

시는 낙강교에 미디어파사드 형태의 경관조명을 할 예정이다. 미디어파사드는 벽면에 영상을 비춰 표현하는 예술이다. 다리에 가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여기에 작은 LED등을 촘촘하게 달아 영상을 나타낸다. ‘I Love Sangju, 빛+무리, Bloom(개화)’ 등 세 가지 주제의 3분 영상을 제작해 보여지게 된다. 시는 해가 진 뒤 영상 3편을 세 차례를 예정이다. 범월교에는 일반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경천섬의 강가 쪽에도 조명이 설치돼 불을 밝힌다.



상주시

시는 아름다운 빛이 물 위에 비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물과 빛이 어우러진 상주시 대표 야경 랜드마크를 조성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총 사업비로 13억원이 들었다.

상주시는 경관조명 외에 경천섬 주변 명소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천섬과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천섬 야생화 단지 조성, 관광명소 연결 노선 일 설치, 경천대 잔도 설치 등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경천대·경천섬 등 낙동강의 기존 관광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추가해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도시’라는 또 다른 상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김홍기 기자 gi2136@metroseoul.co.kr

곡성군, 지역경제 활력 위해 재정 신속집행

올해 상반기 1382억 집행 목표 군수 단장으로 한 추진단 구성 2009년부터 신속집행제도 추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경제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가운데 곡성군이 재정 신속집행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을 9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공공자금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집행의 결과 시중에 자금이 빠르게 돌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탄력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확장적 재정집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초부터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신속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곡성군이 재정 신속집행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을 9일 밝혔다.

곡성군의 경우 올해 총 2304억 원이 신속집행 대상이다. 이 중 60%인 1382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기초자치단체 기준 목표인 57%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곡성군은 먼저 오송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신속집행 대상액의 30%를 이월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별로 이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또한 1,600억 원에 달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프로세스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정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및 투자부문과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눠 목표액을 설정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화순군, 신종 코로나 예방 조치 강화

화순군은 인접한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

고 대중교통 시설 소독에 나서는 등 선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여가복지공간인 나드리노인복지관,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3곳의 운영을 오는 14일까지 중단한다. 이에 따라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밥과 반찬을 개별적으로 포장해 배부할 예정이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도 20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약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타액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조치다. 휴장 기간 중 수영장 추가 방역 위생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예방 물품 배부 등 선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식당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0일(월) 음력: 1월 17일 수도권 날씨 0~9°C. Includes a map of South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Busan, and Jeonju.